

영암 무화과 수확 줄어 가격 폭등

냉해·장마 영향 ... 예년보다 10% 이상 감소

수요도 늘어 8kg 한 상자 4만원까지 치솟아

‘웰빙 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영암 무화과가 냉해와 장마영향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며 값이 경총 뛰었다. 1일 영암군에 따르면 올 초 냉해로 나무가 말라죽은 데다 긴 장마로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아 무화과 생산량이 예년보다 10% 이상 줄었다. 반면 농가들은 생산량 피해정도를

50%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화과 가격은 8kg 들어 한 상자에 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원)에 비해 2배로 폭등했다. 냉해 등으로 피해를 본 무화과 재배 농가는 222곳, 면적은 125ha에 이른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씩이 나올 시기에 4월초에 내린 서

리와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이상 벌어지는 저온현상으로 인해 나무가 평균 60~70%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 장마기간에는 일조량 부족으로 광합성 작용이 원활하지 못해 당도가 떨어지고 과실이 제대로 크지 못해 상품성이 떨어졌다. 무화과 재배농민 김모(67·삼호읍)씨는 “올해 초 입은 동해 피해에다 긴 장마까지 겹쳐 수확량이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본격적인 노지 무화과 생산철인 요즘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생산량이 줄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영암 무화과는 영산강 유역의 기름진 평야에서 맑은 물과 풍부한 일조량에 힘입어 당도와 열량이 높고 식이 섬유 함량이 많은 데다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등이 풍부해 어린이, 노약자 등의 건강 보조식품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영암지역 무화과 재배면적은 245ha로 연간 1천여t(60억원)이 생산된다. /영암=이상휴기자 lsh@



담양 관방제림 맥문동꽃 만개 300여 년이 넘는 거목들이 3km에 걸쳐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담양군 관방제림에 1일 보랏빛 맥문동꽃이 만개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맥문동은 주로 음식에서 자라며 알뿌리는 한약재로 이용된다. <담양군 제공>

함평 ‘기능성 물’ 본격 개발

당뇨·고혈압 등 효험 ... 30억 들어 추진

함평군이 민간업자와 공동사업으로 당뇨와 고혈압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능성 물’을 개발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함평군과 ㈜천지영천원에 따르면 함평군 신평면에서 생산되는 지하 150m 암반수에 대해 30억여원을 투자해 지하수 개발과 환경영향조사, 임상실험, 공장신축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현재 연간 생산 능력이 600여t에 불과한 반자동화 소규모 공장에 시설 투자를 거쳐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 사업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물은 함평군의 의뢰로 실시된 연세대 의과대학 기능수 연구단(단장 이규재 교수)의 임상시험 결과 당뇨와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 관계자는 “천지영천원의 투자 제안에 따라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전남도에 국비지원 신청을 했는데 ‘물’에 대한 지원 사례가 없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직접투자 대신 연구지원 등 간접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해남 우리 밀 주산지 부상

내년 2천100ha 재배 전국 최대 규모

해남지역이 전국 최대 우리 밀 재배단지로 부상하고 있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10월 파종할 2010년산 우리 밀 재배면적은 2천100ha로, 지난해 525ha에 비해 4배 정도 늘었다. 이처럼 재배면적이 크게 확대된 것은 해남군이 2012년 보리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 전환을 위해 ㈜밀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량 계약 재배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초 황산농협에 1천t 규모의 우리 밀 건조저장시설이 신축돼 해남

이 전산지역의 밀 물류기지 역할도 하게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해남이 친환경 농업의 중심지인 만큼 밀 계약재배 면적 중 50%가 넘는 1천100ha를 ‘무농약 이상’으로 재배해 해남산 우리 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는 한편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종자대 지원 등 밀 재배 여건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우리 밀 재배면적은 7천100ha였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변의 감미로운 음악 더위 썩~

완도 생일면 ‘해변 음악회’ 피서객 인기

완도 생일면(면장 정유승) 주민들이 피서객을 위한 음악회를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완도 생일면변영회(회장 이상문)는 최근 생일면 금곡리 해수욕장에서 ‘해변 음악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음악회는 국악, 대중가요, 주민들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

며져 피서객과 주민이 화합하는 한마당 잔치가 됐다. 이번 공연에는 완도 고금출신 인기 가수 진주아씨를 비롯해 무형문화재 안선희씨와 단원들이 출연료를 받지않고 참여했다.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온 피서객 서모씨는 “여가를 활용한 안전관리원이 수시로 순찰해 편안하고 안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었다”며 “해



수목장이 깨끗하고 주민들도 친절해 좋은 인상을 받아 내년에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함평 ‘고추 점목묘’ 재배사업 성공적

병해충에 강해 작황 호조 ... 내년 보급 확대

함평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고추 점목묘’ 재배사업이 긴 장마에도 불구하고 병해충에 강하고 작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9개 읍·면 25농가를 대상으로 고추 점목묘 재배 확대보급사업에 대한 순회 방문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지난 7월부터 8월 상순까지 이어진 긴 장마와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점목묘로 재배한 포장에서 역병 발생율이 현저히 감소, 일반 묘와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김연균(55·함평군 월야면)씨는 “1천983㎡의 면적에 고추를 재배했는데 인근 포장은 역병으로 고사가 심

했으나 점목묘는 한 주도 죽지 않아 다수확을 했다”고 말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성과가 좋아 내년에는 점목묘 보급면적을 100ha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점목묘 재배도 병충해 방제와 포장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추 점목묘 재배는 역병에 강한 고추대목에 농가가 선택한 고추 품종 싹을 점목시켜 재배하는 방법이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농어촌공 영산강사업단

청렴문화 향상 초청강연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반부패의식 고취와 청렴문화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장병식)은 지난달 27일 정성운 목포지청장을 초청해 ‘조직내 청렴문화 향상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특강에서 정 지청장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더욱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며 “법질서를 준수하고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청렴의식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식 사업단장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클린&그린 공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역발전 위해 ‘4대 7자 운동’(첫째, 교통사고 줄이자. 둘째, 바다를 수호하자. 셋째, 영산강을 살리자. 넷째, 특산품을 살리자)을 펼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열대과일 ‘파파야’

해남서 본격 수확



열대과일 ‘파파야’(papaya·사진)가 해남에서 이달초 본격 수확에 들어간다. 해남군 북평면 평암리 김성국(44)씨 등 5농가는 해남기후에 잘 적응한 파파야를 지난 3월 시험재배해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 현재 해남산 파파야는 2m줄기에 20~30여 개의 열매가 달려 있다. 청과용보다는 샐러드 등 요리용으로 5kg당 2만5천원 이상의 가격으로 전량 계약 판매된다. 군 관계자는 “파파야는 비타민K, E가 풍부하게 함유돼 피부미용과 건강기능성이 뛰어난 만큼 소비시장의 판매분석을 통해 시범재배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금산공인중개사
T.681-5686 H.011-601-5354
(금호동 서광주역 건너, 2층현도로)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용지 (C1지역)매매

위 치

상무병원, 롯데마트건대, 삼성화재빌딩 옆(4면 광로변)

대 지

약2850㎡, 가격 협의결정

•근린시설, APT신축, 병원, 일반상가, 기타 중심 상업시설 가능

•최고의 교통접근(광주시청 접근성과5.18 광로변)

•광주최고의 상권, 최고의 입지 상업지역

•현재 10층 신축건물 앞

2008.11월부터 2,000㎡(605평) 이상 건축시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2명 이상
채용하여야 건축허가 가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
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의거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꼭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또한, 제5조에 의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교육일정 2009. 9. 7.부터(월·수·금) 총60시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국토해양부 지정(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문/의/전/화 www.gred.kr •원 장이명규 교 수 062-670-2421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HOME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TEL:062-233-2222 H·P:011-616-8698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 지역 : 전.남북. 기타지역
- 용량 : 100KW이상~ 무제한
- 조건 : 민원해결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

완료된 곳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0-7 유지빌딩 501
(상무지구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 옆)

부동산투자클럽
공인중개사무소

(용봉동 하이마트 옆 육교 바로 아래)

매도, 매수 ☎ 011-641-0925
상담한영 062)515-4985

●추천 급매물건 - 펜션부지최적●

철출산 국립공원 입구 대지면적 7,665㎡ 기준식당 매매
-식당 (연회석 300석 완비 - 피르연, 회갑연, MT회적),
체육시설 (수영장, 족구장), 농장 (돼지, 오리, 토종닭),
단란주점, 숙박업 - 현 성업 중, 모든시설 허가됨
-매매가 3.3㎡당 32만원-

■고시텔매매■ (금년 5월 준공, 최신시설, 풀 옵션)
대 282㎡ / 건 560㎡ 총 52 실(총 당 월 23만원)
전대 후문 건너 체육공원 인근 -매 8억 5천

임 야

▶16,825㎡(계획관리지역) - 나주 남평(중흥스파랜드 입구)
- 매 3.3㎡당 8만5천원

대 지

▶683㎡(제3종 일반 주거지역) - 남구 진월동(광주대 인근)
- 매 11억

▶914㎡- 용봉택지지구 현대 3차 앞 - 매 3.3㎡당 300만원

상가주택

▶대 496㎡/건 1487㎡(6층건물)-오치동 아파트단지 입구
-매 17억

※ 사원모집 - 상가 중개, 경매컨설팅 하심분 모집니다.